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의 本草 고찰을 통해 본 朝鮮 前期 小兒醫學

이가은¹·안상우^{2*}

1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 : 한국한의학연구원

The Bodongbiyo Medical Stuffs Quoted in Uibanyuchwi

Lee Gha Eun¹, Ahn Sang Woo^{2*}

1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Uibanyuchwi, published in 1477, includes the contents of many lost ancient Korean and Chinese medicine documents. Through studying Uibanyuchwi, the ancient Korean pediatry medical document Bodongbiyo could be restored. Bodongbiyo was Korea's representative medical document of the pediatry field that was used until early Chosun dynasty. It was influenced by China's Big medical text, Taepyungseonghaebang and many mineral and animal medical stuffs are listed there. This was influenced by its contemporary factors.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Uibanyuchwi, Taepyungseonghaebang

1. 서론

『保童秘要』는 이미 망실되어 원본을 찾아볼 수 없는 서적으로,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이 『醫方類聚』에 인용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한차례 보고한 바 있는데¹⁾,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만 관련 기록과 인용된 원문이 남아있어서 이 책의 존재가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저자는 유완소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근거가 불분명하며, 내용상으로도 유완소의 다른 저작과 유사점을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千金方』과 『聖惠方』의 내용과 유사점이 많다.

『保童秘要』에 대해 현전하는 처음 기록은 『朝鮮王

朝實錄』 「太宗實錄」으로, 충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꺼내어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²⁾. 이 책의 본문은 『鄉藥集成方』에 9개 조문에 12개 처방, 『醫方類聚』에 40여 조문에 3백여개 처방이 인용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기록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소아과 전문 서적이다³⁾. 김두중은 『한국의학사』에서 『保童秘要』에 대해 ‘본서가 소아과의 전문서로서 당시 고려인들의 실용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은 이것이 근세 조선초에 간행된 『鄉藥集成方』의 소아과

2) 태종 12년 임진(1412, 영락 10) 8월 7일(기미) : 사관 김상직에게 충주 사고의 책을 바치도록 명하다. “사관(史官) 김상직(金尙直)에게 명하여 충주 사고(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소아소씨병원후론(小兒巢氏病源候論)》·《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귀곡자(鬼谷子)》·《오장육부도(五藏六賦圖)》·《신조보동비요(新彫保童秘要)》…… 등의 책이었다.”

3) 『보동비요』 이외의 소아과 서적은 고려사에 기록된 『小兒巢氏病源』과 『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 그리고 太宗實錄에 『보동비요』와 함께 기록된 『小兒巢氏病源候論』 정도이다. 김두중은 『小兒巢氏病源』과 『小兒巢氏病源候論』을 같은 책을 보았는데, 소아과 전문 서적이 아닌 『諸病源候論』에서 소아문을 따로 떼어낸 것으로 보았다.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1) 이가은,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와 조선전기 소아의학, 한국사학회지 19권 2호, 2006

부분에 九文이나 인용되었다는 데에서 넉넉히 짐작된다' 라고 기록한 바 있다. 김두종의 이 같은 언급이 아니더라도 『醫方類聚』 소아문에 40여 세목에 3백여 가지 처방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과, 「太宗實錄」 기사에 이 책을 춘추관에서 내약방으로 옮겨 사용하였다는 기록을 참조하면 이 책이 당시 『醫方類聚』를 편찬하기 위해 급히 수입된 수많은 서적 중 하나가 아니라 당시에 이미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책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소아과 전문서가 수입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미 소아과가 어느 정도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역으로 『保童秘要』를 통해 조선 초기의 소아의학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保童秘要』에 대한 연구는 조선 초기의 소아과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保童秘要』가 『醫方類聚』에 많은 양의 조문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총론이 없고 본문 중에도 주치증 이외에 의론이 따로 없다. 또한 서문이나 목차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처방과 사용된 약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복잡한 의론보다도 처방, 즉 약재의 활용은 실제적인 당대 의학의 모습을 나타내 주므로 당시 임상에서 어떤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였느냐를 통해 그 당시 의학의 색채를 선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찰 과정에서 『保童秘要』에 수록된 처방들이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약재와는 사뭇 이질적인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금석지제 및 동물성 약재들이 처방을 구성하는 주요 약재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개중에는 현재 무슨 약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약재들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에 활용되었을 소아과 전문서인 『保童秘要』에서 사용된 약재의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이 책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독특한 분초에 대해 조사하고, 나아가서 당시에 상용되었던 약재들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후대 의서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본론

1. 『保童秘要』와 『太平聖惠方』의 연관성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保童秘要』가 『千金方』 및 『聖惠方』 계통의 서적임을 추측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醫方類聚』 내의 『성혜방』 인용문과 『보동비요』 인용문의 본초와 처방을 구체적으로 대조해 본 결과, 두 서적간의 관계가 보다 직접적임을 알 수 있었다.

『太平聖惠方』은 992년(北宋의 太宗代)에 편찬되었는데, 전국 각지의 의방을 광대하게 수집하여 편성된 대규모 의방서이다. 이 책은 고려 현종대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 1016년과 1021년 두차례에 걸쳐 들어왔는데 『高麗史』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조(韓祚)가 송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성혜방(聖惠方)·음양 이택서(陰陽二宅書)·건흥력(乾興曆)·불경 1질을 내려주었다.⁴⁾

책이 편찬된지 불과 2~30년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11세기 초에 들어온 태평『성혜방』은 조선 초 까지 의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책이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구성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성혜방』과 『보동비요』는 사용된 본초와 처방에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여기서는 『醫方類聚』에 인용된 『성혜방』과 『보동비요』의 본문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두 서적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1) 본초의 연관성

『保童秘要』⁵⁾에는 약 250여종의 본초가 사용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醫方類聚』의 『聖惠方』 인용문에 사용된 본초와 중복되는 것이다. 그중에는 『醫方類聚』 인용문 중에서 다른 책에는 없고 오직 『聖惠方』과 『保童秘要』에만 사용된 본초도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靑古錢, 東引槐枝, 烏驢乳, 蠶蛹繭, 新羅松子, 玄荳, 紅粳米, 苳藤, 黃蒿穗, 黃蒿子

4) “韓祚還自宋 帝賜聖惠方 陰陽二宅書 乾興曆 釋典一藏” [고려사 권제4, 38장 앞쪽, 세가 4 현종 13.5]

5) 본고에서 『保童秘要』라 함은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를 말한다.

반면에 250여종의 본초 중에 『보동비요』에는 실려 있으나 『성혜방』에는 없는 약재는 고작 십여종에 불과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嶺南黃藥, 秋菓子, 菓子靑, 冬瓜穰, 夜飛鳥, 茵草, 葛草, 龍膽眼, 燒降帛, 老黃龍汁

2) 처방의 연관성

본초 뿐 아니라, 처방도 또한 두 서적 간에 중복되는 것이 많다. 『保童秘要』와 『聖惠方』에서 중복되는 처방은 대부분 『聖惠方』의 처방을 채택하여 인용하였고 『保童秘要』를 비교본으로 삼아 세주에서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 처방은 30여개에 이르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소아제창을 치료하는 방 : 보동비요 제작풍, 증출

황벽 1냥 부저후매 3푼 보동비요에서는 이상 같은양 난발회 1푼 보동비요에서는 약간

위의 약을 구분하여 먼저 황벽을 찧어 가루내고 나머지 두 약을 넣어 갈아 고르게 하여 배꼽 가운데 붙인다. 보동비요에서는 약간 눌러주라고 하였다.⁶⁾

또, 『醫方類聚』 『保童秘要』 인용문 중에서 적응증을 설명한 후에 처방을 신지 않고 『聖惠方』을 참조하라고 주석을 달아 놓은 것도 있다.

뒷머리에 무고감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방 :

… (중략) … 침 가운데를 달구어서 콩알 2개 깊이로 찌른다. 곧 침향고를 붙이고 압경서각음자를 먹인다. 침향고방은 성혜방에 있다.⁷⁾

『보동비요』의 저작 연대는 불명확하나, 『醫方類聚』의 인용서목 수록순서를 볼 때 『성혜방』 이후의 서적임은 거의 확실시된다. 앞의 본초와 처방 고찰을 통해 볼 때, 『보동비요』의 저자는 『성혜방』을 직접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治小兒臍瘡方: 保童秘要臍痛風, 汁出 黃藥壹兩 釜底黑煤 三分, 秘要已上等分 亂髮灰一分 秘要少許

右件藥, 先搗黃藥爲末, 入二味, 合研令勻, 以傳臍中, 秘要少少擊之.

7) 腦後有無辜諸方: … (중략) … 以針當中烙之, 可深二豆許, 卽帖沈香膏, 仍服壓驚犀角飲子. 沈香膏方. 方見聖惠方

실제로 『성혜방』이 北宋 太宗때 만들어져 국가적으로 널리 반포되기는 하였으나, 워낙 권질이 방대하기 때문에 편찬 의도대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이후에 『성혜방』을 간략히 추리고 입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 엮은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聖惠選方』, 『聖惠經要方』 같은 책은 『성혜방』을 직접 요약 편집한 것이고, 『簡要濟衆方』 같은 책은 『太平聖惠方』에서 간추린 내용에 일부 명방을 더한 것이라 한다. 『보동비요』도 『성혜방』으로부터 상당수의 처방을 직접인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책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성혜방』을 참고본으로 하여 여러 의서 및 자신의 경험을 더하여 소아질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서를 엮어낸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2. 『保童秘要』에 사용된 본초의 특징

1) 동물성 및 광물성 약재 다양

우선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에 수록된 본초를 가려 뽑아 보았는데, 어떤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0여가지가 된다. 우선 이 본초를 『證類本草』의 분류 방식대로 분류하였는데, 다음 표와 같다. 『證類本草』의 방식을 택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證類本草』가 『聖惠方』과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편찬된 서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조선 전기의 우리 약재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鄕藥集成方』의 「鄕藥本草」의 분류 방식이 『證類本草』의 분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동비요』에서 사용한 약재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보동비요』에 사용된 약재를 살펴보면 그 중에는 같은 약을 다른 글자로 적어 놓은 것이 있고⁸⁾ 같은 계통의 약제인데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⁹⁾ 또 하나의 동, 식물에서 다른 부위를 사용하거나 제형을 달리 한 것이 있으며¹⁰⁾ 어떤 본초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아 분류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¹¹⁾

8) 예를 들면 消石과 銷石은 같은 약인데 두가지로 다 표기한다. 또 巴豆와 芭豆, 黃蓮과 黃連 등 상당수가 같은 약재를 약간씩 다르게 표기하였는데, 이것을 볼 때 『醫方類聚』에서 인용한 보동비요의 판본이 정확한 원본이 아닌 필사본이나 상당히 변형된 것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9) 예를 들면 龍骨과 五色龍骨, 黃藥과 嶺南黃藥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 예를 들면 羊肝, 羊糞, 羊髓같이 한 동물의 여러 부위를 사용한 것이 있고, 葛根, 葛粉, 葛汁과 같이 한 식물을 여러 제형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

11) 예를 들면 紫芩, 老黃龍汁과 같은 약재는 초부에 해당하는 지 옥석부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않아서 분류가 불가능하다.

『保童秘要』에 수록된 본초를 『證類本草』의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표1과 같다.

분류	본초명
玉石部	朴消(蜀朴消), 消石(銷石), 礪砂, 丹沙(水井丹沙), 礬(白礬 吳白礬 降礬, 礬石), 芒消, 馬牙消(馬阿 牙消), 滑石, 曾青, 赤石脂, 珊瑚, 水銀(膩粉), 雄黃(武都雄黃), 銀膏(銀薄 銀石), 凝水石, 磨刀石, 石膏, 石鹽, 梁上塵, 石灰, 鉛丹, 輕粉, 紅雪(紫雪), 代赭, 黃丹, 胡粉, 朱粉(朱砂 成鍊朱砂 走石)
草部	人參(仁蓼 黃蓼), 甘草, 菊花, 丹蓼, 麥門冬(吳麥門冬), 決明子, 細辛, 升麻(蜀升麻), 龍膽, 防風, 生地黄, 柴胡, 沙參, 黃耆, 黃連(黃連), 羌活, 茵陳, 天門冬(蜀天門冬), 石斛, 青木香, 房葵, 藍葉(藍子 吳藍 吳藍葉 青藍葉), 菖蒲, 兔絲子, 草決明子(青箱子), 白朮, 乾薑, 生薑, 葛根(葛粉 葛汁 生葛), 牡丹(牡丹), 鬱金(鬱金子), 白芷, 知母, 芍藥, 通草, 苦參, 麻黃, 黃芩, 鬱金, 前胡, 紫參, 防己, 高良薑, 秦艽, 肉豆蔻, 當歸(蜀當歸), 艾葉, 天麻, 紫菀, 浮萍, 貝母, 地榆, 青黛(波斯青黛), 甘遂, 狼牙, 蜀漆, 大黃(川大黃), 半夏, 白附子, 附子(大附子 黑附子), 桔梗, 烏頭, 常山, 夜干, 牽牛子, 檉麻子, 蛇脰(蛇銜草), 石榴根(東引石榴根), 蘆會(蘆根), 豆蔻仁, 續芩子, 漢防(漢防己), 燈心, 鶴虱, 地膽草, 蓮子草, 葶藶(葶藶子 葶藶草), 胡黃連, 黃高穗(黃高子), 金線重樓, 章柳根汁, 狼牙, 大青
木部	鷄舌香, 桂心, 乳頭香, 蘇合香, 槐枝(東引槐枝), 沈香, 杜仲, 丁香, 黃檗, 檗皮, 藿香, 地骨皮, 葵仁, 伏苓, 蕪荑(蕪荑熬 白蕪荑 白蕪荑仁 黑蕪荑), 乾漆, 吳茱萸, 厚朴(厚薄), 桑根皮(桑白皮 桑皮), 檳榔, 梔子(梔子人 梔子仁 山梔子), 豬苓, 天竺黃, 白檳榔(檳榔人 檳榔仁), 龍腦, 鬼箭, 竹葉(苦竹葉 淡竹葉 竹瀝 青竹皮 天竹黃), 黎蘆, 枳殼, 訶梨勒(訶梨勒皮 訶子皮), 黃藥(嶺南黃藥), 皂子(皂莢), 郁李人(郁李仁), 巴菝(巴豆), 垂柳(垂柳枝), 無石子, 臘茶, 石南葉, 蜀椒, 芎藭(芎藭皮), 瓜蒌根(天瓜根), 有子練皮, 鬼箭, 雷丸
人部	童子小便, 天靈蓋
獸部	象膽, 羊肝(羊糞 羊髓 白羊子肝), 青羊腦髓(青羊糞), 牛黃, 熊膽(雄膽 熊脂), 阿膠, 龍骨(五色龍骨 白龍骨 龍齒), 麝香, 犀角(黑犀), 兔肝, 牛糞, 虎睛, 羚羊角, 鹿角(鹿茸), 烏驢乳(驢糞), 狐陰莖, 獾肝, 豬膽(獺猪膽 猪乳 猪肪脂), 狗骨
禽部	鴿糞, 鷄子(鷄子白 鷄糞), 夜明砂
蟲魚部	海蛤, 鯽魚, 赤蜜, 蠟(黃蠟), 牡蠣, 桑螵蛸, 鼈甲, 龜腹, 烏賊魚骨, 蝸牛殼, 蚱蟬(蟬殼), 蛇蛻(蛇皮), 白花蛇, 烏蛇(烏蛇肉), 穿山甲, 蚺蛇膽, 蝮蛇膽, 蜈蚣, 蟾酥, 鼠肉, 衣中白魚, 蛻蟬, 斑貓, 蝦蟆, 蠶繭
果部	橘皮(青橘皮), 棗肉, 草薺薺仁, 烏梅肉, 新羅松子, 杏仁(熬杏仁 杏子油), 桃奴, 鵝梨汁
米穀部	赤小豆, 小麥(麩), 麥稔, 糯米, 紅粳米, 醬汁, 豆豉(淡豉 焦黑豆豉), 玄菟(黑菟), 苜蓿, 麻油(麻仁)
菜部	葱白(葱鬚), 薤白, 紫蘇, 生芸薹, 鷄蘇, 葵子, 苡子(冬瓜穢), 萋荷
미분류	紫芩, 秋菓子, 葉子青, 夜飛鳥, 蠶蛹繭, 青古錢(青銅錢), 茵草, 煙脂, 藜草, 龍膽眼, 燒降帛, 老黃龍汁

표 1. 『증류본초』의 분류체계에 따른 『보동비요』 수록 약재

표1을 보면, 玉石部와 水部, 禽部, 蟲魚部에 해당하는 약재가 상당히 많아서 전체 약재 수의 1/3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동비요』의 특징이자 또한 광물성 및 동물성 약재를 많이 사용하던 당시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약재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재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로는 『보동비요』에 사용되는 약재 중 현재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떤 약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소개하고 특기할 점을 짚어보았다.

2) 『保童秘要』에서 사용된 독특한 약재

『保童秘要』에 실려 있는 많은 본초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본초가 몇 가지 있다. 자료가 극히 빈약하여 어떤 종류의 본초인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青羊

『保童秘要』에는 羊腦髓, 羊糞, 羊肉, 羊肝 등 양을 사용한 처방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青羊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醫方類聚』 번역본에는 푸른 양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鄉藥集成方』 번역본에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다. 『證類本草』의 羴羊角의 본문 중에 청양의 효능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아 산양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는 단방으로 青羊肝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된 바가 없다.

『保童秘要』에는 青羊腦髓와 青羊糞을 사용한 처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다른 처방 : 청양분 적당량,

위의 약을 햇빛에 말려 살짝 볶아서, 무명에 싸서 귓속을 막는다. 하루에 두 번 갈아준다¹²⁾.

- 뇌건무채방 : 승마 치자 방풍 각 3푼

위의 약을 가루내어서 청양뇌수로 반죽하여 오자대 크기로 환을 만든다. 한살짜리 아이에게는 매번 5환씩 따뜻한 물로 먹인다. 하루에 두 번 먹는다¹³⁾.

12) 又方: 青羊糞不計多少 右曝乾, 輕炒, 絛囊塞耳中, 日再換.

13) 腦乾無涕方: 升麻梔子防風各三分 右爲末, 取青羊腦髓和爲丸如梧子大, 每一歲兒一服五丸, 溫水研化下, 日再服.

(2) 象膽

象膽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코끼리 쓸개이고 다른 하나는 盧會의 속명이다¹⁴⁾. 『保童秘要』에 기록된 것이 둘 중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힘들다, 『보동비요』에 따로 노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코끼리 쓸개가 아닌가 생각된다. 『醫方類聚』 번역본에서도 코끼리열이라고 번역하였다. 『保童秘要』에서는 보통에 사용하는 처방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다른 처방 : 건질 호두알만한 크기 1개 상당 반푼, 같은것

오른쪽 약을 물 4홉을 넣고 2홉이 될 때까지 끓여 찌꺼기를 없앤 후 상담을 넣는다.

3세 이하는 밤이 될 때 까지 먹여 다 먹을 때까지 준다¹⁵⁾.

실제로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수입된 기록이 있다. 태종실록에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 받아 길렀다는 기록¹⁶⁾이 있으나 곡식을 너무 많이 먹는데다 사람을 밟아 죽는 일이 생겨 전라도 해도로 내려 보내는¹⁷⁾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후 계속적인 사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조선 전기에 코끼리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神農本草經疏』에서는 象膽의 주치와 효능에 대해서, 明目하며 疴病과 瘡腫을 치료한다고 하였다¹⁸⁾.

14) 『本草綱目』 서리의 藥名同異에서 象膽을 象之膽과 盧會 두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15) 又方: 乾漆唐胡桃大象膽半分 研

右以水四大合, 煎取二合, 去滓, 入象膽, 三歲已下, 壹日連夜與服盡.

16) 태종 21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2월 22일 계축 2번째기사 :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17) 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5일 신사 4번째기사 :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고,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 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18) 象膽主明目及治疴瘡腫以水化塗之治口臭以綿裹少許貼牙根平旦漱去數度即瘥 疏○象膽苦寒之物也入肝脾二經肝熱則目不明脾家鬱熱則成疴積或口臭苦寒除二經之熱故能主諸證苦寒涼血解毒故又能主瘡腫也今世治疴證瘡癩傳屍多用之總取其苦寒能殺疴蟲瘡兼除臟腑一切熱結也

(3) 蟒蛇膽

蟒蛇膽은 口瘡諸方의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데, 다른 의서에서는 거의 사용된 레가 없으며 『證類本草』에도 실려 있지 않다. 『本草綱目』에서 諸蛇에 기록되어 있는데, ‘蟒蛇目圓出述異記 大蛇曰蟒’ 즉 둥근 모양의 눈을 가진 뱀이다. 『述異記』에 나오며 큰 뱀을蟒이라고 한다. 『述異記』는 梁나라 任昉이 쓴 책으로 신화와 전설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본문에서 ‘虎頭 龍足 蟒目 蛟眉’를 가진 요괴에 대한 기록 밑에 세주로 ‘蟒蛇目圓’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들로 보아 이미 『本草綱目』이 지어진 당시에 망사가 어떤 뱀인지 정확히 아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醫方類聚』 번역본에서는 구렁이열이라고 하였다. 망사담이 사용된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처방 : 무도옹황 초석 망사담 황련 석염 황삼 단사 각 1푼, 계분 반석 행인 2개 크기, 사향 행인 3개 크기

위의 약을 실처럼 찢어 편 다음 다시 곱게 간다. 입안이 험 데에 색이 붉던지 희던지 크기가 크던지 작던지, 혀 위에 난 것이나 뺨과 잇몸에 난 것에 상관없이 하루에 3,4번 바른다¹⁹⁾.

(4) 蚌蛇膽

蚌蛇膽은 『醫方類聚』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서적으로부터 인용되었다. 『千金方』, 『聖惠方』, 『大典本草』, 『保童秘要』, 『聖濟總錄』, 『肘后方』, 『衛生易簡方』 등의 서적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된 약재인데, 『證類本草』 蟲部下品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그림이 실려 있다. 『醫方類聚』 번역본에는 蚌蛇膽과 마찬가지로 구렁이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후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東醫寶鑑』 등의 서적에는 보이지 않는다. 『證類本草』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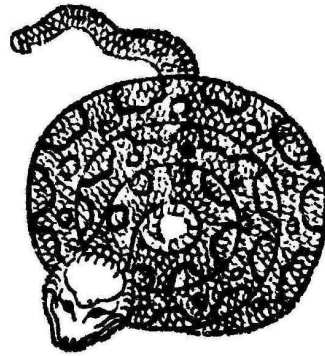


그림 8. 『證類本草』 蚌蛇膽

(5) 無石子

일반적으로 『醫方類聚』 내에서 無石子는 雄黃無石者, 膽礬無石者와 같이 문자 그대로 ‘돌이 섞이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런데 『保童秘要』 인용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초명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다.

- 적백리에 사용하는 방:

- 다른 처방 : 당귀2푼 무석자2매 녹각말반푼 검게 볶은 것 두시 검게 볶은 것 오색용골 검게 구운 것 황련 인삼 각1푼

위의 약을 가루내어 꿀로 마자대 크기의 환을 빚어, 한살짜리 아이에게는 7환씩 미음에 타서 하루 세 번 먹인다.²⁰⁾

이는 『證類本草』의 木部下品에 기록된 無食子임이 거의 확실하다. 적백리를 치료하는 약제로 일명 沒石子라고도 한다는 주석이 붙어 있는데, 無食子, 無石子, 沒食子, 沒石子를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 같다.

(6) 秋菓子

咳嗽에 인용된 처방중 두군데에서 秋菓子を 사용하였

19) 又方: 武都雄黃 消石 蚌蛇膽 黃蓮 石鹽 黃蓼 丹沙各壹分 鷄糞 礬石二杏仁大 麝香三杏仁許 右擣羅, 更細研, 凡口中瘡, 不問赤白大小, 生於舌上頰中及齒齦, 並宜塗之, 日可三四度.

20) 又方: 當歸二分 無石子 二枚, 煨 鹿角末半分, 炒令焦黑 豆豉炒令焦黑 五色龍骨炙過令焦 黃連人參各壹分 右爲末, 蜜和爲丸, 如麻子大, 壹歲兒每服七丸, 米飲研化下, 日三服.

다. 한 가지 처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른 처방 : 추과자 1매 같은 것 마황1푼 마디를 자른 것 감초 반푼 구운 것 정력자 200립

위의 약을 물 5홉을 넣고 끓여 2홉이 되게 한 후 찌꺼기를 버리고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²¹⁾

그리고 驚癇門에 인용된 처방 중에 秋菓核大라고 크기를 표현한 부분이 있다. 아마도 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일 텐데, 다른 의서에서는 사용한 기록이 거의 없고 사고전서 중 유일하게 『普濟方』에 ‘龜不可合瓜共 飲酒共秋菓食’ 이라는 기록이 있어 술과 잘 어울리는 과일임을 알 수 있다. 『醫方類聚』 번역본에는 가래나무 열매씨라고 되어 있다.

(7) 老黃龍汁

『保童秘要』에 실린 노황룡즙 사용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단독이 온몸에 퍼진 것을 치료하는 방:

- 다른 처방 : 노황룡즙을 꿀에 고르게 섞어 바른다²²⁾

황룡탕이라는 처방은 여러 서적에서 많이 보이나 소시호탕 가감방이고 황룡이라는 약재가 사용된 처방이 아니다. 아마도 『鄉藥集成方』의 鄉藥本草 중 人尿에 나와있는 내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과 같다. 본초강목 人尿에도 糞清 釋名黃龍湯이라고 쓰여 있다.

홍경에 이르기를 납월에 담죽의 푸른 껍질을 벗겨 입구를 막아 똥 구덩이에 넣어 둔다. 몇 년 후에 꺼내면 매우 검고 쓴 즙을 얻는데 이름하여 황룡탕이라고 한다²³⁾.

(8) 紫芩

자금은 『證類本草』와 『本草綱目』을 비롯하여 어느 의서에도 수록된 문을 찾지 못하였다. 오직 『醫方類聚』 인용문 중 『보동비요』를 제외하고는 『三因方』과 『玉機微義』에 한군데씩 보인다. 하지만 『三因方』의 紫芩은 사고전서본에는 紫蘇라고 되어 있고,

『玉機微義』의 자금은 紫菀으로 교점이 되어 있다. 유독 『保童秘要』에서만 紫芩이라는 약재가 총 8개 처방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7개 처방이 驚癇에 사용되는 처방이다. 아마도 『保童秘要』의 저자가 살던 지역에만 있는 특수한 약재이거나 그 지역에서 사용된 명칭이 아닌가 생각된다. 驚癇門의 인용처방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淮南王紫金散이라는 처방명이다.

諸驚癇, 不問風之與熱, 發作形狀千端, 竝宜服淮南王紫金散方:

虎睛壹具, 炙川當歸二分羌活蠶頭者桂枝甘草各三分防風地骨皮烏蛇肉去鱗甲, 炙芍藥葛粉各三分黃芩五分, 去塵土川大黃文如錦者麻黃去節牡蠣左顧者. 各六分凝水石石膏光明者赤石脂 各八分牛黃五分 紫芩 此物作粉家有亦名大牙也, 須得此藥最切朴消各十二分

이 조문 내에서 紫芩에 대해 ‘此物作粉家有亦名大牙也, 須得此藥最切’이라는 세주를 달아 놓았는데, 이 처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재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명이 大牙라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운데 글자가 관독 불가능한 모양이다. 作粉家, 즉 분을 만드는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분은 胡粉 즉 鉛粉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미루어 보아 옥석부에 해당하는 약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이외에도 葉子青, 夜飛鳥 등은 다른 의서에서는 쓰이지 않는 독특한 약재인데, 현재까지는 어떤 종류인지 밝히지 못하였다.

3) 산지와 품종이 표시된 본초 사용

(1) 新羅松子

신라송자는 『證類本草』 果部下品の 海松子에 쓰여 있는데, 해송자 본문 중에 신라에서 난다는 기록과 함께 中土의 松子와 같지 않다고 밝혀 놓았다²⁴⁾. 『保童秘要』에 新羅松子가 사용된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복창제방 : 육두구 반매, 반각 신라송자 2푼, 따로 뺀 것, 인삼 대황 박초 ?푼 백출 반푼

위의 약을 물 5홉을 넣고 2홉 반이 될 때까지 끓여 찌꺼기를 버리고 먹는다²⁵⁾.

21) 又方: 秋菓子 壹枚, 研麻黃壹分, 去節甘草半分, 炙葶藶子二百粒 右以水五大合, 煎取二合, 去滓, 分作兩服.

22) 又方: 取老黃龍汁, 以蜜勻調塗之

23) 弘景曰臘月截淡竹去青皮塞口納糞坑中積年得汁甚黑而苦名爲黃龍湯療瘧病垂死皆瘥

24) 海松子 味甘小溫無毒 主骨節風頭眩 去死肌變白 散水氣 潤五藏 不飢 生新羅 如小栗三角其中仁 香美 東夷食之當果 與中土松子不同

25) 腹脹諸方: 肉豆蔻半枚, 半顆新羅松子二分, 別搗人參 大黃 朴消 各去 此字疑衍, 待考, 分白朮 半分 右以水五大合, 煎取二合半, 去滓服之.

(2) 波斯青黛

파사는 페르시아의 한자어 표기이다. 『證類本草』의 草部中品에 청대 본문 중에 波斯國에서부터 왔다²⁶⁾는 기록이 있다. 『保童秘要』에서 파사청대는 腦疳과 腦後有無辜를 치료하는 처방에 각각 사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 한가지 처방 : 서각 맑은 물로 갈아 반홉을 취한다 파사청대 행인 1개 크기

위의 약을 한군데 고루 섞어 복용한다²⁷⁾.



그림 9. 『證類本草』 명주황약

(3) 嶺南黃藥

嶺南은 현재의 광둥, 광서 지역으로, 당나라때 五嶽의 아래에 위치한다고 해서 嶺南이라고 하였다. 『證類本草』 木部下品의 黃藥根 본문 중에, ‘味が 고, 평, 무독하며 악종, 창루, 후비와 뱀과 개에게 물린 독에 사용한다 …… 영남에서 난다²⁸⁾’ 고 쓰여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으로는 明州黃藥²⁹⁾이 실려 있다. 『保童秘要』에 영남황약이 사용된 처방은 諸痢門에 인용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일체의 이질에 쓰는 처방 : 황련 감초 각2푼 영남황약 오람 서각 각1푼 치자 2매

위의 약을 물 7홉을 넣고 3홉이 될 때 까지 끓여 찌꺼기를 버린다. 1세 아이에게는 하루에 1홉씩 먹이는데 밤에도 역시 그렇다³⁰⁾.

(4) 吳藍葉

吳藍葉은 『保童秘要』의 五香丸이라는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이다. 『聖惠方』과 『聖濟總錄』에도 같은 五香丸이라는 이름의 처방이 있는데, 처방 내용이 약간 달라서 吳藍葉이 쓰이지 않는다. 吳藍葉이 사용된 오향환은 사고전서 가운데에서 『普濟方』에 수록된 것이 유일하였다³¹⁾. 『보동비요』에 기록된 오향환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오향환방 : 일체 창중에 고름이 있건 없건 열이 몹시 나는 것을 치료한다

청목향 1푼 사향 반푼 침향 소합향 계설향 각 3푼 서각설 10푼 오람엽 황련 치자 당귀 감초자 방풍 황기 황금 6푼 작약 인삼 승마 각4푼 대황 6푼 파두 90매 껍질을 버리고 줄여 자색이 되면 종이에 싸서 재 속에 하루동안 묻어 기름을 뺀 후 진흙같이 되도록 간다.

위의 약을 모두 가루내어 파두를 넣고 고르게 갈아 꿀로 오자대크기로 환을 만든다. 한살짜리 아이에게는 매번 2알씩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인다.³²⁾

26) 靑黛味鹹寒無毒主解諸藥毒小兒諸熱驚癇發熱人行頭痛寒熱並水研服之亦摩傳熱瘡惡腫金瘡下血蛇犬等毒從波斯國來及太原并廬陵南康等染澱亦堪傳熱惡腫蛇虺螫毒染瓮上池沫紫碧色者用之同靑黛功

27) 又方: 犀角以靑水磨取半合 波斯靑黛壹 此下脫字, 按文義疑作“杏”. 仁許 右壹處勻調, 頓服之.

28) 黃藥根味苦平無毒主諸惡腫瘡癢喉痺蛇犬咬毒取根研服之亦含亦塗藤生高三四尺根及莖似小桑生嶺南

29) 명주는 오늘날 Ningbo(寧波)로 상해 남쪽에 위치하며 고려시대에 송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고려의 사신이 송나라로 들어가던 관문이었으며 고려사관이 존재했던 곳이다.

30) 一切痢諸方: 黃蓮 甘草 各二分 嶺南黃藥 吳藍 犀角 各壹分 梔子 二枚 右以水七大合, 煎取三大合, 去滓, 壹歲兒壹日服壹合夜亦然.

31) 『普濟方』에는 『保童秘要』와 동일한 계통의 처방이 상당수 실려 있다. 이는 『保童秘要』가 이미 망실된지 오래이나 『보제방』을 편찬할 당시 수집된 여러 서적 가운데 『保童秘要』와 동일한 계통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醫林撮要』에 인리사산이 『保童秘要』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처방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나 『보제방』에서 가장 유사한 처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제방』과 『보동비요』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후에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32) 五香丸方: 靑木香 壹分 麝香 半分 沈香 蘇合香 鷄舌香 各三分 犀角屑 十分 吳藍葉 黃連 梔子 當歸 甘草炙 防風 黃耆 黃芩 芍藥 仁蓼 升麻 各四分 大黃 六分 芭豆 九十枚, 去尖, 以油熬令紫色, 以紙裹

『證類本草』 草部上品之下에 藍實 본문 중에, ‘江陵府³³⁾ 吳藍과 복주의 馬藍은 같은 藍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다른 약’ 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다.



그림 10. 『證類本草』 江陵府吳藍

(5) 武都雄黃

武都是 중국 남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證類本草』에서는 옹황 조문 중에 武都山에서 난 것이 순수하고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³⁴⁾ 고 하였다. 雄黃 뿐 아니라 丹砂, 礬石, 朴消도 무도의 것이 좋다고 되어 있다. 『보동비요』에서 무도옹황은 口瘡 치료방에서 사용되는데, 다음과 같다.

- 다른 처방 : 무도옹황 초석 망사담 황련 석염 황삼 단사 각 1푼, 계분 반석 행인 2개 크기, 사향 행인 3개 크기

위의 약을 실처럼 찢어 편 다음 다시 곱게 간다. 입안이 흰 데에 색이 붉던지 회던지 크기가 크던지 작던지, 혀 위에 난 것이나 뺨과 잇몸에 난 것에 상관없이 하루에 3,4번 바른다³⁵⁾.

於灰中裏壹日，去油，熟研如泥

右竝爲末，後入芭豆研勻，以蜜爲丸，如梧子大，一歲兒每服二九，溫水研化下。

33) 사고전서본에는 강령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인민위생출판사에서 출판된 증류본초에는 강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강릉 부는 현 호북성지역이다.

34) 雄黃當得武都山所出者 純而無雜

35) 又方：武都雄黃 消石 蟒蛇膽 黃蓮 石鹽 黃蓼 丹沙各壹分 鷄糞 礬石二杏仁大 麝香三杏仁許

右擣羅，更細研，凡口中瘡，不問赤白大小，生於舌上頰中及齒齦，竝宜塗之，日可三四度。

기타 蜀當歸, 蜀朴硝, 蜀升麻, 蜀天門冬, 蜀漆 등과 吳麥門冬, 吳白礬 등의 약재도 지역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保童秘要』에서는 신라, 파사, 영남, 강령, 무도 등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사용하고 있다. 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약재라도 산지에 따라 종이 다르고 효능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반드시 정확한 품종을 사용할 것을 명기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五色龍骨같은 최상품 약재를 사용하도록 표시한 처방도 있는데, 『보동비요』에서 정확한 산지와 품종의 본초를 사용하는 것을 증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만으로 많은 것을 추측할 수는 없으나, 『保童秘要』가 적어도 어느 한 지역에서 민간에 쓰기 좋은 처방을 모아 놓은 서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保童秘要』가 지어진 시대적, 지역적 배경이 여러 나라의 약재를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조선 전기 이후 사용된 본초의 흐름

위에서 보듯이, 『보동비요』에서는 玉石部, 禽部, 獸部, 蟲魚部에 해당하는 본초가 다량 사용되어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의학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동시대에 편찬된 『鄉藥集成方』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약재를 배제시켰을 뿐, 광물성 및 동물성 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때 어떤 계기로 동일한 질병에 사용하는 약재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을까? 여기에서는 조선 초, 중기를 대표하는 서적인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에 사용된 본초를 비교하여 그 흐름을 짚어보려고 한다.

1) 의론에 따른 처방을 사용한 『醫林撮要』

『醫林撮要』는 선조 초기의 간행본이 있었고 그후 정경선이 찬하고 양예수가 교정한 8권본이 1589~1592년 사이에 발간되었다. 『醫方類聚』 편찬 이후 100년 이상이 흘렀으며 그 사이에 金元四大家의 의학 이론과 명대의 새로운 의서가 수입되어 의학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醫林撮要』는 중국의 새로운 의학을 재빠르게 흡수하여 정리한 서적이다. 당송대의 의방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단방이나 경험방적인 처방 기록이 거의 없고 의론에 따른 처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醫林撮要』에는 『보동비요』가 한 군데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보동비요』에 관한 가장 마지막 시기의 기록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까지

『보동비요』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재나 처방의 사용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성혜방』과 『보동비요』 계열의 처방이 실효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초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는 두드러지는데, 『보동비요』에 사용된 약재 중에 다음과 같은 약재들이 『醫林撮要』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白礬 伏龍肝 胡粉 臘雪水 焰硝 地龍汁 藍葉汁 黃連 蒲黃 酸漿 王瓜 使君子 天南星 蔞薈 苧根 五加皮 竹葉 柳絮 龜尿 鯽魚 露蜂房 蟹 蟹 蟬殼 蟾蜍 烏賊魚 白僵蠶 蝸牛 蟾蜍 牡鼠肉 雄鼠糞 小蝦 蛇蛻 蜘蛛 蚯蚓 蜈蚣 水蛭 雀甕 蛙 壁錢 栗毛殼 葡萄 乾柿 梨 脂麻 赤小豆 蓼實 冬瓜仁 薄荷 馬齒莧 芥子 鷄腸草 水芹 人爪 亂髮灰 鷄子 白鴨 鵝毛 夜明砂 鷓鴣屎 鸚鵡 百舌鳥 麝香 牛黃 熊膽 阿膠 虎骨 兔肉 豬乳汁 狐陰莖

표 2. 『東醫寶鑑』 소아문 단방에 수록된 본초

이 외에 사용된 것들도 다만 한 두 군데에 그칠 뿐이어서 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醫林撮要』가 『醫方類聚』, 『東醫寶鑑』과는 분량과 편찬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본초 사용 빈도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약물 사용의 경향성을 볼 때 그 변화가 너무나 뚜렷하다. 이런 차이는 『醫林撮要』가 최신 의학지식을 발빠르게 수입하면서, 명대 수입된 의서의 영향으로 이론에 따라 처방을 정미롭게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송대의 다분히 경험방적인 처방들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석지제와 유독한 약재의 사용을 꺼리는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선 전기 의학의 명맥을 잇는 『東醫寶鑑』 단방

『醫林撮要』에서 대폭 빈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신지 않았던 많은 약재들이 『東醫寶鑑』에 와서는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약재들은 처방을 구성하는 약재로 사용된 것 보다는 단방요법으로 활용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玉石部 ; 朴消, 輕炒, 丹沙, 磨刀石, 梁上塵, 鉛丹

- 禽部, 獸部 ; 羊肝(羊糞 羊髓), 青羊腦髓(青羊糞), 象膽, 兔肝, 獺肝, 烏驢乳(驢糞), 枸骨, 鷄糞, 鼠肉, 蚌蟬, 狐陰莖, 鴿糞 鷄糞

- 蟲魚部 ; 蚱蟬, 蟾酥, 鼠肉, 衣中白魚, 斑貓, 蝦蟆

표 3. 『醫林撮要』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동비요』의 약재들

『보동비요』에 사용된 약재 중 靑古錢(=古文錢), 鴿糞, 鼠肉, 白羊子肝, 石藍葉, 垂柳枝, 黃藥, 梁上塵, 狼牙, 東引石榴根 같은 약들이 바로 『東醫寶鑑』에서 단방으로 쓰이고 본문에 처방을 구성하는 약재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즉, 이론에 따른 처방을 본문에 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방에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東醫寶鑑』 단방을 살펴보면, 그 안에 복용법 뿐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약재와 함께 간략한 처방을 구성하는 법까지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선 전기에 사용되던 약재들이 광물성 및 동물성 약재의 폐단과 그에 대한 금원의학의 이론화된 경향으로 인하여 의학의 주류에서 점차 도태되었고, 단방요법을 비롯한 경험방의 수준에서만 사용됨으로서 점차 쇠퇴되어 갔음을 볼 수 있다.

III. 결론

『保童秘要』는 조선 전기까지 사용되었던 소아과를 대표하는 서적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임상에 활발히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서적이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시기에 우리나라 의학의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保童秘要』의 본초고찰을 통해서 이 책의 성격과 조선 전기의 소아 의학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保童秘要』는 『太平聖惠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어진 서적이다. 『醫方類聚』에 인용된 『聖惠方』과 『保童秘要』의 인용문을 대조한 결과, 『保童秘要』에서 사용된 본초의 대부분이 『聖惠方』과 중복되었으며, 처방에 있어서도 『聖惠方』의 처방을 직접 인용한 것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保童秘要』가 『聖惠方』의 小兒門을 주된

참고본으로 하고 기타 서적과 저자의 경험방을 덧붙여 임상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찬한 소아과 전문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保童秘要』에는 유난히 광물성 약재와 동물성 약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다른 의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약재들도 사용되고 있으며 또 산지와 품종을 명확히 표기한 본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保童秘要』가 지어진 시대적, 지역적 배경이 다양한 산지의 본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保童秘要』는 조선 전기까지 원본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醫林撮要』 이후로는 어느 서적에서도 인용되지 않는다. 본초 비교 결과 『醫林撮要』에서는 『保童秘要』에서 많이 사용된 광물성, 동물성 약재들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빠진 것도 많은데, 『東醫寶鑑』에서는 『醫林撮要』에서 빠졌던 본초들이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재들은 『東醫寶鑑』의 본문에 처방을 구성하는 약재로 사용되기보다는 단방에 기록된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선 중기에 넘어오면서 이미 금원의학의 이론화된 경향으로 인하여 당송대의 경험방들은 의학의 주류에서 밀려나 점차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조선 초에 다용되던 처방의 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경험방의 수준으로 『東醫寶鑑』 단방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IV. 참고문헌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새천년 鄉藥集成方』, 서울 : 정담, 2000.
- 김기욱 외 15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 김동일 외 역편, 『鄉藥集成方』,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6.
- 김두중,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 김남일 맹웅재 외, 『강좌 중국의학사』, 大成醫學社, 2006.
- 김남일 맹웅재 외, 『韓醫學通史』, 大成醫學社, 2006.
- 金禮蒙 等撰, 浙江省中醫研究所 · 湖州中醫學院校,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1981.
- 金禮蒙 等撰. 浙江省中醫研究院 校閱. 『醫方類聚』. 서울 : 醫聖堂 영인, 1993.
- 唐慎微 撰,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人民衛生出版社 影印, 1982.
- 楊禮壽 原著, 조현영 外 共譯, 國譯韓醫學大系 『醫林撮要』, 海東醫學社, 1999.
- 劉完素, 『保童秘要』,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6.
- 정금생 외, 박현국 외 역, 『중국과학기술사 의학편』, 일중사, 2005.
- 包錫生, 『韓藥異名辭典』, 서울 : 의성당, 1994.
-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8.
- 강연석,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2.
-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6권 1호, 2003.
- 김홍균, 『醫林撮要』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이가은,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와 조선전기 소아의학, 한국의사학회지 19권 2호, 2006.
-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CD』, 上海人民出版社 迪 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http://www.minchu.or.kr>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www.jisik.kiom.re.kr>